

구술자료 상세목록

사업명	미추홀시민기록단 ‘미추홀 송의목공예마을’ 기록				
구술자명	변경인	면담자	이혜숙		
면담장소	송의 목공예 센터	면담지원	정은주		
면담 일시	2022년 8월 16일	회차	1	시간	44분 13초
자료번호	MichuholCA-07-00001606				
구술 개요	서울공예사를 경영하다 5월에 가게를 접음, 현재 목공센터에서 강의하고 있음, 18살에 인천으로 올라와 25살에 목공회사를 경영하고, 30대 후반에는 가구사업을 했음. 원목 가구를 납품하다 내 브랜드로 해야겠다고 생각해 시작하게 되었음. 배다리 쪽에 있었을 때 목선반을 많이 했었음. 스피커 거래를 10년 넘게 했었으며, 불링장에 들어가는 목재 제품도 했었음. 제일 많이 했던 건 실내 원형 계단, 무성영화에서 유성영화로 바뀔 때 화면 뒤에 숨어있던 스피커(윈스턴 스피커)를 만들었음.				
주요 색인어	목공, 농아학교, 서울공예사, 가구, 사업, 공예사, 우드박스, 까사미아, 소품, 분야, 스피커, 송의동, 목재, 계단, 단단한, 나무, 성취감, 수출, 창작의 고통, 성당, 원목, 목공센터, 도구, 철공소, 기계, 안전				
구술 상세목록 내용			시간	관련 파일(비공개)	
1. 생애인터뷰			00:00:00~ 00:02:01	▷ 활동기획안 ▷ 구술활용동의서 ▷ 개인정보동의서 ▷ 음성파일 ▷ 녹취문	
- 서울공예사를 경영하다 5월에 가게를 접음. - 목공체험지도사 1급을 가지고 목공센터에서 강의하고 있음. - 고향은 시흥시. 18살에 인천 미추홀구로 옴. 40년 정도 살았음.					
2. 목공업 인터뷰			00:02:01~ 00:05:08		
- 전도관 밑 송림동에 처음 살았으며, 25살 때 도원역 근처 목공회사를 경영하며 농아들을 가르치는 목공 학교에서 2년 근무함. - 도원역에서도 ‘서울공예사’ 라는 상호명으로 운영함. - 30대 후반에 김포에서 가구사업(우드박스)을 15년 정도 함. - 수십 명의 직원이 있는 큰 회사였는데, IMF로 접게 되었음.					
3. 생애인터뷰2			00:05:11~ 00:06:10		
- 29살에 인천에서 결혼.					
4. 과거 인터뷰			00:06:13~ 00:38:28		
- 지인에 의해서 목공을 하게 되었음. - 그 시절에는 일자리가 많지 않아 마땅치 않았음. - 가구 회사를 하면서 인기를 끈 원목가구를 납품하다 내 브랜드로 해야겠다고 생각해 시작하게 되었음. - 안 해본 작업은 간판, 조각 종류.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나무 스피커 만드는 작업을 십여 년 했음. - 목공예센터 근처에서 하다가 빌라가 들어서면서 제물포쪽으로 이전을 하게 됨. 이 동네에서 20년 정도 있었음. - 송의동에서 처음 할 땐 20-30명의 종업원들이 있었음. IMF 이후 혼자 하게 되었음. - 예전엔 문을 만드는 분들이 대다수였음. 배다리 쪽으로는 공예사들이 많았음. - 배다리 쪽에 있었을 때 목선반을 많이 했었음. - 10년 넘게 고정 거래처가 있던 상황에서 후배한테 가게를 물려줬음. - 스피커 거래를 10년 넘게 했었으며, 불링장에 들어가는 목재 제품도 했었음. 제일 많이 했던 건 실내 나무 계단. - 원형 계단을 주로 많이 했음. - 남이 못 만들던 것을 연구해서 만들 때 성취감이 좋음. 특히, 만든 작품을 사서 수출하는 분이 계셨음. - 스피커에 들어가는 나무는 미국 소나무(햐늬). 계단은 고무나무. 소품은 집성목. - 벽시계에 들어가는 부품 만드는 일도 꽤 했었음. - 무성영화에서 유성영화로 바뀔 때 화면 뒤에 숨어있던 스피커(원스틴 스피커)를 만들었음. - 나무는 전부 인천으로 들어오고, 지금 쓰고 있는 목재들도 인천 북항으로 들어옴. - 필요한 도구를 사용하기 위해 대장간 가서 맞춰서 쓰거나 판매되는 목공구를 개조해서 사용. - 도원역 쪽에 거래하시는 철공소가 있음. 		
<p>5. 목공 안전 이야기</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현재 목공예거리는 기존 기계로 운영하고 계심. - 일 할 때 가장 주안점을 가져야 하는 것은 안전. 		